

# 전북, 한우 고급육 생산 전국 최고

국내 최초 암소 개량사업 실시 1++등급 출현율 20.1%  
전국평균 비교 14억 추가 소득 창출 효과 타지역과 차별화

전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가 암소 개량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 고급육 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의 수소 위주의 반쪽 한우개량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국내 최초 암소개량을 동

시에 실시해 1++등급 출현율이 20.1%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1++등급 출현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 보면 약 14억원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전문 개량 컨설팅을 신규로 추진해 내 농장의 개량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능력 배양으로 사업 효과를 배가 시킬 계획이다. 도는 기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장에 직접 개량 전문 컨설턴트가 방문해 농장 스스로 개량목표(체중, 고급육 등)를 설정할 수 있도록 농장 여건에 맞는 가족 정보(유전능력 등) 제공 및 활용방법을 컨설팅 할 방침이다.

시군별로 한우 농가의 개량에 대한 인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집합 컨설팅을 실시하여 많은 농가가 개량에 대한 이해와 실천방법을 숙지하여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전북도 축산관계자는 “차별화된 한우 산업 발전을 통해 전라북도가 농생명산업을 대표하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신안군, 소형어선 선회기 교체 지원사업

신안군은 5억원을 들여 소형어선 선회기(사진) 교체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 어업인 대부분이 소형어선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영세어업인들로 선박과 장비의 교체와 수리비 부담을 느껴왔다. 신안군은 올해 순수 군비 5억원을 소형어선 선회기 교체 지원사업비로 확보했다. 군은 올해 초 사업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사업 신청자를 선정(38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가솔린 선회기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적기에 정비하지 못한 선박은 장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장비 교체로 고심거리가 되어왔다. 군은 앞으로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가장 심각한 환경 분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영세 어선 선회기 교체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영암군, 신중년 경력자 30명 일자리 제공

### 고용부 공모사업 선정

영암군이 신중년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군은 국도비 1억8000만원을 재원으로 관내 만 50세 이상 신중년 퇴직자 등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신중년 참여자는 지역 요양보호시설에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도서관에 독서·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에 사는 건강한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 인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와 봉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 고창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설명회 개최

고창군이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 정책을 이끌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고창군립도서관에서 고창문화원 등 지역문화예술관광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은 9월을 목표로 현재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설립 타당성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재단 설립 필요성 ▲운영방식과 대상

사업 범위 등 재단설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이 논의됐다. 또 이 자리에서 지역 문화계 관계자들은 재단이 기획·지원하는 기관이 되어야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되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창군 관계자는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수행할 전담기구로 군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며 “안정적인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남원시가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으로 대대적인 경기장 개보수에 나선다. 춘향골 롤러 트랙경기장. <남원시 제공>

## 남원시,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 ‘우뚛’

총 30억 투입 롤러트랙경기장 개보수 등 인프라 구축 성과

남원시가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춘향골 롤러 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을 포함해 총 4개소의 사업이 선정돼 18억45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대회 유치 등에 노력한 성과로 지역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힘을 받게 됐다. 특히 이번엔 선정된 사업 중 춘향골 롤러 트랙경기장 개보수사업은 총 30억원(국비 9억, 시비 2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매년 국제 경기가 개최되는 야외시설로 비가림시설 설치 및 관람석 개보수 등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춘향골체육공원 주경기장 관중석 보수공사 8억원(국비 2억4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 용성고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7억5000만원(국비 2억2500만원, 시비 5억2500만원), 주생초등학교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사업 16억원(국비 4억8000만원, 시비 3억2000만원, 교육청 8억원)이 선정돼 추진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으로 남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돼 2020년 도민체육대회를 비롯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행사 때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익산시,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49억 푼다

익산시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이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며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이다.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2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TMR, 조사료를 포함한 보조사료 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된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

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등이다. 사업 신청은 2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하면 된다. 시는 올해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올해 3월 중 1차적으로 29억원에 대한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 중 2차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063-859-5762)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축산농가가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사료비 부담이 완화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홈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대출 3억 3천만원 포함)
- 문의. 010-6834-7400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